

■ 가을 정취와 함께 마시는 꽃차

찻잔에 꽃이 피면 마음은 향에 젖네

일교차가 큰 때이다. 한 낮에는 30도 가까운 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저녁놀이 질 때쯤이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 따뜻한 차 한 잔을 생각나게 한다. 등산로나 학단에 피어있는 꽃 향기를 그대로 찻잔에 담을 수 있을까.

을 가을, 꽃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향기에 취해보자. 야생화로 만든 꽃차 전문점 '며루랑 다래랑'은 운영 중인 송희자(44·당양군 월산면)씨는 "만드는 방법과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 기본적으로 모든 꽃은 꽃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송씨로부터 꽃차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봤다.

■ 모든 꽃을 우려 마신다고?

꽃차 중 가장 알려진 것은 국화차다. 국화의 경우 야생에 있는 '산국'은 약용으로, '대국'은 화전 등 음식의 재료로, '갑국'은 차로 이용돼왔다. 흔히 볼 수 있는 감자를 생것으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꽂도 적절한 가공방법을 거쳐야 차로 우려낼 수 있다.

아카시아, 등나무꽃, 꿀풀 등은 생것 그대로 차의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꽃은 말리거나 쪄고 뒤는 등의 가공방법을 거쳐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그대로 뜨거운 물을 부어 차로 마시거나 설탕 또는 꿀에 절여 보관한 뒤 끓는 물에 부어 마실 수도 있다. 송씨는 "흔히 꽃에는 독 성분이 있어서 먹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독을 잘만 이용한다면 꽃 만큼 영양 둘어리인 것도 없다"고 말했다.

막 개화한 꽃 이슬 깨기전 따는 게 좋아 색 간직하려면 소금물에 꽃 씻어 말려야

■ 꽃을 잘 따라면

산이나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모두가 차의 재료가 될 수 있다해도 무턱대고 따선 안 된다.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올바른 채취법은 꽃차의 향에도 영향을 준다. 적당히 속아주듯 손으로 직접 따는 것이 좋다. 꽃은 막 개화한 것이 차의 재료로 쓰기에 가장 적당하다. 지나치게 편 것은 멀 예쁘고, 벌레의 침입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는 뿐만 아니라 꽃내가 나며 맛도 떨어진다.

좋은 꽃은 이슬이 깨기 전에 따는 것이 좋다. 밤 동안 간직하고 있던 대지의 기운을 아침이 되면서 뿐어내기 때문이다. 제비꽃이나 민들레 등을 집에서 길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기르는 재미를 주고, 집안을 화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엔 산교육을 시킬 수도 있어 일석삼조다. 물론 차를 마실 수 있는 기쁨을 빼놓을 수 없다.

■ 꽃차를 만들려면

봄에 피는 꽃은 그늘에 말랐다가 다 말랐다고 생각될 때 1시간 정도 강한 햇볕에 다시 말린다. 습기를 완전하게 제거해준다. 봄꽃은 꽃잎이 얇아서 꽃에 재우면 녹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려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름꽃은 수술에 독성이 있는 것이 많아 꽃잎만 따서 쓴다. 말리기 쉽지 않다면 꿀이나 설탕에 재워도 좋다. 설탕으로 먼저 재워 하루 지난 다음 꿀을 위에 덧입하고 다시 3일 후쯤 냉장 보관한다.

이슬 맞은 가을 꽃은 독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난방한 방에 넣어 말려도 된다. 가을 꽃은 향이 강한 것이 특징. 예쁜 꽃의 색을 보존하고 싶다면 소금물에 꽃을 씻어 말린다. 겨울 꽃은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 두고 말린다. 말린 꽃은 밀봉해서 보관하는 것이 기본. 냉장고나 냉동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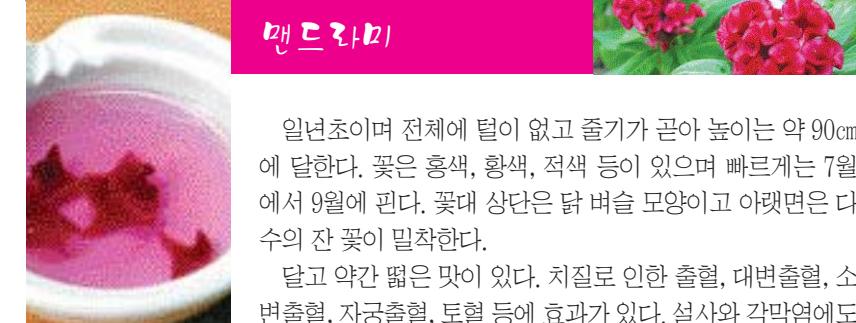
올가을은 꽃향기를 그대로 머금은 꽃차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자. 송희자씨가 다양한 꽃을 이용해 꽃차를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송희자씨가 제안하는 가을 꽃차 만들기

가을 꽃은 이슬을 맞아 독기가 거의 없다. 가을은 낮에 아직 뜨거운 햇볕이 남아 있어 꽃을 말리기에도 적당한 시기. 송희자씨가 제안하는 꽃차 만들기에 도전해보자.

설사·출혈팬 '맨드라미'…눈 피로엔 '과꽃'
자궁·하복부 허약체질 개선엔 '쑥꽃차'를



マンドラミ

쑥꽃

과꽃

일년초이며 전체에 털이 없고 줄기가 곧아 높이는 약 90cm에 달한다. 꽃은 흰색, 황색, 적색 등이 있으며 봄에는 7월에서 9월에 핀다. 꽃대 상단은 닳 벼슬 모양이고 아랫면은 다수의 잔 꽃이 밀착한다.

달고 약간 짭은 맛이 있다. 치질로 인한 출혈, 대변출혈, 소변출혈, 자궁출혈, 토혈 등에 효과가 있다. 설사와 각막에도 도움을 준다.

〈차 만드는 법〉

- ① 맨드라미는 씨앗 부분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윗부분만 쓴다.
- ② 사이사이에 있는 거미줄이나 이물질을 깨끗이 손질한다.
- ③ 2~3mm정도로 잘게 쟁된다.
- ④ 그늘에서 말린 후 프라이팬에 살짝 데워낸다.(2~3회 반복)
- ⑤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차 만드는 법〉

- ① 8~10월까지 채취가 가능하며 봉오리에서부터 개화한 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
- ② 양지 바른 꽃의 쑥 꽃을 훑듯이 채취한다.
- ③ 서둘러 그늘에 얹지 않게 폴리백에 넣어 말린다.
- ④ 50% 이상 말린 후 기름이 달지 않은 프라이팬이나 냄비에다 떠는다.
- ⑤ 끓으면서 비비면 뿐만 아니라 나온다.
- ⑥ 4~6회 반복하면 되는데 소쿠리에다 쳐서 가루나 먼지가 걸려지도록 한다.

〈차 만드는 법〉

- ① 8~10월까지 채취가 가능하며 봉오리에서부터 개화한 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
- ② 양지 바른 꽃의 쑥 꽃을 훑듯이 채취한다.
- ③ 서둘러 그늘에 얹지 않게 폴리백에 넣어 말린다.
- ④ 50% 이상 말린 후 기름이 달지 않은 프라이팬이나 냄비에다 떠는다.
- ⑤ 끓으면서 비비면 뿐만 아니라 나온다.
- ⑥ 4~6회 반복하면 되는데 소쿠리에다 쳐서 가루나 먼지가 걸려지도록 한다.

〈차 만드는 방법〉

- ① 과꽃은 꽃이 조금 큰 편에 속하므로 바로 꽃 밀동까지 잘라 채취할 수 있다.
- ② 채취한 과꽃은 이물질이 있는 것을 뿐이나 면행주로 깨끗이 손질한다.
- ③ 물을 끓여 그 위에 점기를 놓고 꽃을 쪘다.
- ④ ③을 할 때 약 40초 정도 찌는 것이 좋으며 식힌 다음 다시 찌기는 2~3회 반복한다.
- ⑤ 채반에 얹게(겹치지 않게) 넣어 말린다.
- ⑥ 밤에는 따뜻한 방에다가 낮에는 서늘한 그늘에 달리는 것이다.

〈차 만드는 방법〉

- ① 과꽃은 꽃이 조금 큰 편에 속하므로 바로 꽃 밀동까지 잘라 채취할 수 있다.
- ② 채취한 과꽃은 이물질이 있는 것을 뿐이나 면행주로 깨끗이 손질한다.
- ③ 물을 끓여 그 위에 점기를 놓고 꽃을 쪋다.
- ④ ③을 할 때 약 40초 정도 찌는 것이 좋으며 식힌 다음 다시 찌기는 2~3회 반복한다.
- ⑤ 채반에 얹게(겹치지 않게) 넣어 말린다.
- ⑥ 밤에는 따뜻한 방에다가 낮에는 서늘한 그늘에 달리는 것이다.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상촌동 한국병원 앞)

합동법률경매(주)

(광주지방법원 앞)

☎ 433-7799 H.P. 011-1770-3328

법원경매 전문회사

- 앞서가는 사람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점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회 파트너 / (주) 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시 및 성립여부, 낙찰가 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기동기, 가치분석, 경작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 근로시설/근린상가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소재지 / 대구/경북/경원 (부) 강릉가 최자기

월계동/월계1동/월계2동/월계3동/월계4동/월계5동/월계6동/월계7동/월계8동/월계9동/월계10동/월계11동/월계12동/월계13동/월계14동/월계15동/월계16동/월계17동/월계18동/월계19동/월계20동/월계21동/월계22동/월계23동/월계24동/월계25동/월계26동/월계27동/월계28동/월계29동/월계30동/월계31동/월계32동/월계33동/월계34동/월계35동/월계36동/월계37동/월계38동/월계39동/월계40동/월계41동/월계42동/월계43동/월계44동/월계45동/월계46동/월계47동/월계48동/월계49동/월계50동/월계51동/월계52동/월계53동/월계54동/월계55동/월계56동/월계57동/월계58동/월계59동/월계60동/월계61동/월계62동/월계63동/월계64동/월계65동/월계66동/월계67동/월계68동/월계69동/월계70동/월계71동/월계72동/월계73동/월계74동/월계75동/월계76동/월계77동/월계78동/월계79동/월계80동/월계81동/월계82동/월계83동/월계84동/월계85동/월계86동/월계87동/월계88동/월계89동/월계90동/월계91동/월계92동/월계93동/월계94동/월계95동/월계96동/월계97동/월계98동/월계99동/월계100동/월계101동/월계102동/월계103동/월계104동/월계105동/월계106동/월계107동/월계108동/월계109동/월계110동/월계111동/월계112동/월계113동/월계114동/월계115동/월계116동/월계117동/월계118동/월계119동/월계120동/월계121동/월계122동/월계123동/월계124동/월계125동/월계126동/월계127동/월계128동/월계129동/월계130동/월계131동/월계132동/월계133동/월계134동/월계135동/월계136동/월계137동/월계138동/월계139동/월계140동/월계141동/월계142동/월계143동/월계144동/월계145동/월계146동/월계147동/월계148동/월계149동/월계150동/월계151동/월계152동/월계153동/월계154동/월계155동/월계156동/월계157동/월계158동/월계159동/월계160동/월계161동/월계162동/월계163동/월계164동/월계165동/월계166동/월계167동/월계168동/월계169동/월계170동/월계171동/월계172동/월계173동/월계174동/월계175동/월계176동/월계177동/월계178동/월계179동/월계180동/월계181동/월계182동/월계183동/월계184동/월계185동/월계186동/월계187동/월계188동/월계189동/월계190동/월계191동/월계192동/월계193동/월계194동/월계195동/월계196동/월계197동/월계198동/월계199동/월계200동/월계201동/월계202동/월계203동/월계204동/월계205동/월계206동/월계207동/월계208동/월계209동/월계210동/월계211동/월계212동/월계213동/월계214동/월계215동/월계216동/월계217동/월계218동/월계219동/월계220동/월계221동/월계222동/월계223동/월계224동/월계225동/월계226동/월계227동/월계228동/월계229동/월계230동/월계231동/월계232동/월계233동/월계234동/월계235동/월계236동/월계237동/월계238동/월계239동/월계240동/월계241동/월계242동/월계243동/월계244동/월계245동/월계246동/월계247동/월계248동/월계249동/월계250동/월계251동/월계252동/월계253동/월계254동/월계255동/월계256동/월계257동/월계258동/월계259동/월계260동/월계261동/월계262동/월계263동/월계264동/월계265동/월계266동/월계267동/월계268동/월계269동/월계270동/월계271동/월계272동/월계273동/월계274동/월계275동/월계276동/월계277동/월계278동/월계279동/월계280동/월계281동/월계282동/월계283동/월계284동/월계285동/월계286동/월계287동/월계288동/월계289동/월계290동/월계291동/월계292동/월계293동/월계294동/월계295동/월계296동/월계297동/월계298동/월계299동/월계300동/월계301동/월계302동/월계303동/월계304동/월계305동/월계306동/월계307동/월계308동/월계309동/월계310동/월계311동/월계312동/월계313동/월계314동/월계315동/월계316동/월계317동/월계318동/월계319동/월계320동/월계321동/월계322동/월계323동/월계324동/월계325동/월계326동/월계327동/월계328동/월계329동/월계330동/월계331동/월계332동/월계333동/월계334동/월계335동/월계336동/월계337동/월계338동/월계339동/월계340동/월계341동/월계342동/월계343동/월계344동/월계345동/월계346동/월계347동/월계348동/월계349동/월계350동/월계351동/월계352동/월계353동/월계354동/월계355동/월계356동/월계357동/월계358동/월계359동/월계360동/월계361동/월계362동/월계363동/월계364동/월계365동/월계366동/월계367동/월계368동/월계369동/월계370동/월계371동/월계372동/월계373동/월계374동/월계375동/월계376동/월계377동/월계378동/월계379동/월계380동/월계381동/월계382동/월계383동/월계384동/월계385동/월계386동/월계387동/월계388동/월계389동/월계390동/월계391동/월계392동/월계393동/월계394동/월계395동/월계396동/월계397동/월계398동/월계399동/월계400동/월계401동/월계402동/월계403동/월계404동/월계405동/월계406동/월계407동/월계408동/월계409동/월계410동/월계411동/월계412동/월계413동/월계414동/월계415동/월계416동/월계417동/월계418동/월계419동/월계420동/월계421동/월계422동/월계423동/월계424동/월계425동/월계426동/월계427동/월계428동/월계429